대학생의 영어 모음 청취 및 발음능력 조사 연구

- 영어 전설 모음을 중심으로 하여 -

박 주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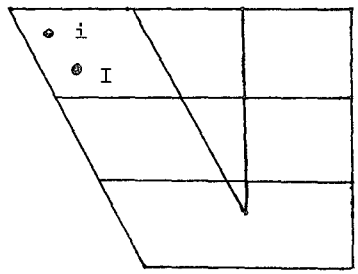
1. 머릿말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영어 청취 및 발음 능력이 수준 이하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가정은 대학에서 교양 영어 강좌를 맡아 본 사람은 누구나 경험론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현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실태를 돌아 본다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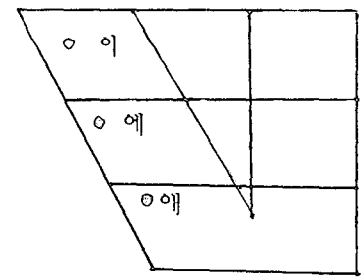
여기서 언어교육의 '듣기' 와 '말하기' 의 중요성을 새삼 거론하지는 않겠다. 또한 우리의 언어교육 실태를 새삼 거론하지도 않겠다. 다만 6년간의 영어 교육을 받고 대학에 들어온 대학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영어 청취 및 발음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고 실제적인 문제점을 제시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상당한 계획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영어 모음 그것도, 전설모음에 제한하여 보겠다. 영어는 한국어와 음소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집중적이고 의도적인 훈련이 없으면 영어 발음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영어전설모음은 이러한 점에서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한국어 평순전설모음은 / 이-에-애 / 셋인데 (여기서도 좁은

층에서는 /에-애/의 구별에 혼동을 한다.) (이 현복1971:39 참조)
영어의 경우 /i:-I-e-æ/의 넷으로 구분되고 그 음가도 서로 상이하여 무조건 /i:-ɪ/와 /이/, /e/와 /에/, /æ/와 /애/로 대응시킬 수 없다. 다음 모음 사각도가 이를 입증한다.



(그림1) 영어 전설 모음
(Gimson 1980:101-108)



(그림2) 한국어 전설 모음
(이 현복 1980:63)

물론 위의 두 그림에서 모음음소 표시는 표준음가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여러가지 변이음의 영역을 가질 수 있다. 위의 두 그림에서 우리는 쉽게 한국인이 영어청취와 발음에서 겪는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음성학적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이같이 예측되는 이론상의 가정은 그대로 문제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대상

2-1 연구 방법

(1) 조사 문제지

조사 문제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문제 I, II, III, IV는 '청취'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고 문제V는 '발음'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I. Identify /i:/, /I/ .

1. 2. 3. 4. 5.

Ⅱ. Identify /I/,/e/.

1. 2. 3. 4. 5.

Ⅲ. Identify /e/,/æ/.

1. 2. 3. 4. 5.

Ⅳ. Identify the vowels : /i:/,/ɪ/,/e/, and /æ/.

1. 2. 3. 4. 5. 6.

7. 8. 9. 10. 11. 12.

Ⅴ. Pronounce following words.

1. /bɪt/ bit 2. /bæt/ bat 3. /bi:t/ beat

4. /bet/ bet 5. /bed/ bed 6. /bi:d/ bead

7. /bæd/ bad 8. /bɪd/ bid

9. /dʒi:n laiks dʒɪn/ Jean likes gin.

10./ted hæz ə tʃek kæp ɪn ɪz hænd / Ted has a check cap in his hand.

(2) 청취 능력 조사

청취 능력 조사를 위한 문제 Ⅰ, Ⅱ, Ⅲ, Ⅳ는 녹음자료로 준비하였다. 녹음자료는 A. C. Gimson, *A Practical course of English Pronunciation*의 녹음 테이프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Gimson 교수의 영국 표준발음으로 생각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문제지의 녹음 내용

Ⅰ. (1) ɪ (2) i: (3) i: (4) ɪ (5) i:

Ⅱ. (1) ɪ (2) e (3) ɪ (4) ɪ (5) e

Ⅲ. (1) æ (2) e (3) e (4) æ (5) e

Ⅳ. (1) feet (2) bed (3) bet (4) fit (5)seat
(6) hit (7) head (8) bad (9) bid (10)bat
(11)cat (12)feed

문제 Ⅰ,Ⅱ,Ⅲ 은 녹음된 내용을 듣고 두 음중 하나를 판별하여 직접 발음기호로 쓰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리 발음기호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었다. /ɪ/발음기호가 생소한 학생들을 위하여 실제로는 /i/ 와 같이 쓰는 것을 허용하였다. 문제 Ⅰ, Ⅱ, Ⅲ 은 순수하게 두 모음만을 구별하는 것인데, 어떤 환경도 주지 않고 소리를 식별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Ⅳ 의 경우는 실제로 환경을 부여하였다. 단음절 CVC 의 한 음절 낱말을 이용하되 종성자음에 신경을 써서 치경폐쇄음으로 통일하고 유성음 (/d/) 과 무성음 (/t/)을 적절히 배열하였다. 네개의 전설모음이 각각 세 낱말씩 들어가게 하여 12개의 단어를 섞어 배열하였다. 즉 /i:/는 feet, seat, feed ; /ɪ/는 fit, hit, bid ; /e/는 bed, bet,head; /æ/는bad, bat, cat. 물론 학생들은 답지에 모음 발음기호만을 쓰게 하였다. 녹음 자료는 문제별로 두 번 반복하여 들려 주었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들려주었다.

(3) 발음 능력 조사

여기에 대한 자료는 1번부터 8번은 / b-t/ 또는 / b-d/의 두 음성적 환경에 /i:/, /ɪ/, /e/, /æ/ 의 네 모음이 들어 가도록 하여 혼합배열하였다. 이는 청취력 때와 마찬가지로 각 환경에 따라서 발음하는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9번과 10번은 실제 문장을 주고서 문장 단위안에서 모음의 발음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9번

에서는 / i:/ 와 / I/의 대조되는 발음, 10번에서는 /e/(/ted/ 와 /tʃek/)와 /æ/ (/hæz/, /kæp/, /hænd/)의 발음을 위한 것이다. 9번과 10번의 자료는 존 추림 원저(이 현복 편역) 표준 영어발음(1980)에서 발췌하였다.

발음 능력 조사 문제는 미리 문제를 나누어 주어 몇분간의 개별적인 연습을 허용한 뒤 (전체적으로 설명이나 발음 교정을 하지 않았다), 한 사람씩 직접 녹음하였다.

2-2 조사 대상

조사대상으로는 전국 각 대학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이상적이지만,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중부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서울, 청주의 두 개 대학교에서 1학년의 3개 학과 (각 대학에서 중간정도 수준의 학과라고 생각되는 학과)에서 1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발음능력조사를 위해서는 이중 68명을 녹음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약 3분의 1 (42명)이 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두드러진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아서 남녀 구분은 하지 않았다. 또한 출신지역도 무시하였다. 3개 학과의 결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통합적인 결과만을 생각하기로 했다.

3. 조사결과의 분석

3-1 청취능력 조사 결과

문제 Ⅰ, Ⅱ, Ⅲ에서 각기 정답 문항수에 따라 5문항 모두 정답을 한 경우부터 정답을 하나도 못한 경우 0까지로 하여 다음 표1 을 만들었다.

표1 영어 전설모음 청취내용 분석표

문제 번호	문제 내용	정답문항수 (%) 5	4	3	2	1	0	합계
I	/i:/, /ɪ/	89 (71.8)	14 (11.3)	5 (4.0)	5 (4.0)	6 (4.8)	5 (4.0)	124 (100)
II	/ɪ/, /e/	43 (34.7)	35 (28.2)	31 (25.0)	10 (8.1)	4 (3.2)	1 (0.8)	"
III	/e/, /æ/	25 (20.2)	31 (25.0)	24 (19.4)	24 (19.4)	15 (12.1)	5 (4.0)	"

여기 표1 은 순수한 단모음만의 구별이다. 그것도 대조되는 두 모음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식별이 되리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의 결과와 같이 문제1을 제외하고는 만점 정답자가 50%를 넘지 못한다. 특히 /e/와 /æ/의 경우는 예측한 바와 같이 비관적이다.

다음 표2 는 문제Ⅳ 의 답지 내용을 문항 분석한 결과이다. 답지내용중 기타의 경우는 답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모음기호를 쓴 경우라 하겠다.

표2 영어 전설모음 청취 문항 분석표

문항 번호	내 용	i:	ɪ	e	æ	기 타	합 계
1	fi:t	55 (44.4)	63 (50.8)	2 (1.6)	1 (0.8)	3 (2.4)	124 (100)
2	bed	4 (3.2)	5 (4.0)	67 (54.0)	43 (34.7)	5 (4.0)	"

3	bet	12 (9.7)	26 (21.0)	41 (33.1)	32 (25.8)	13 (10.5)	"
4	fɪt	24 (19.4)	83 (66.9)	6 (4.8)	2 (1.6)	9 (7.3)	"
5	si:t	95 (76.6)	14 (11.3)	3 (2.4)	5 (4.0)	7 (5.6)	"
6	hɪt	10 (8.1)	41 (33.1)	44 (35.5)	20 (16.1)	9 (7.3)	"
7	hed	3 (2.4)	3 (2.4)	68 (54.8)	45 (36.3)	5 (4.0)	"
8	bæd	2 (1.6)	4 (3.2)	31 (25.0)	82 (66.1)	5 (4.0)	"
9	bɪd	18 (14.5)	73 (58.9)	25 (20.2)	4 (3.2)	4 (3.2)	"
10	bæt	1 (0.8)	0	59 (47.6)	60 (48.4)	4 (3.2)	"
11	kæt	6 (4.8)	8 (6.5)	52 (41.9)	46 (37.1)	12 (9.7)	"
12	fi:d	107 (86.3)	7 (5.6)	1 (0.8)	1 (0.8)	8 (6.5)	"

위의 표2는 환경이 주어지고 네개의 모음이 들어있는 낱말을 뒤섞어 배열하였지만 따지고 보면 두 음중의 하나를 고르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1번부터 12까지의 정답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평균하여 보면 전체 평균 5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도를 가지고 과연 의사소통이 될까 의문시된다. 정답률이 50%미만인 경우도 5문항이나 되고

(1번, 3번, 6번, 10번, 11번) 80%가 넘는 경우는 12번 /fi:d/(86.3) 뿐이다.

다음에 모음별로 좀더 자세히 관찰하여 보겠다.

(1) / i: /

표1 에서 /i:/와 / I/의 구별은 만점이 71.8%나 되어 얼핏보면 / i:/와 / I/ 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표2 에서 나타난다. 단적으로 말해서 /i:/와 / I/의 구별은 음가로 하지않고 음의 길이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독립된 모음이면 길이가 충분히 나타나지만 무성자음 앞에서는 길이가 다소 축약된다. 그러나 축약된다고 해도 사실은 / I/와 같지 않다(Gimson 1980 : 103 참조). 그런데 표2 에서 1번 / fi:t / 의 경우는 상당히 길이가 축약이 되어있다. 그래서 / I/로 듣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 같다. 5번 / si:t /의 경우는 무성자음 앞이지만 치찰음 /s/뒤에서 축약이 심하지 않은 것 같다(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좀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성자음 앞에서의 / i:/는 학생들에게 / I/로 오인되기 쉽고, 이것은 /i: /와 / I/의 음가에 의한 차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 I /

표1 에서 보면 / I/는 /e/와도 상당히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 낱말에서는 환경에 따라 / i: /와 더 혼동되기도 하고 (표2 의 / fIt /) /e/와 혼동되기도 한다(표2 의 / hIt /). 그런데 전반적으로 /e/와 더 혼동하는것 같다. 표2 에서 특이한 현상은

/hɪt/의 경우인데 매우 불안정하다. 이것은 /t/음과 더불어 /h/음도 그 이유가 되지 않는가 추측된다. /fɪt/의 경우는 1번의 /fi:t/와 비교하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같은 무성자음 앞이지만 /fi:t/의 경우가 /fɪt/보다 모음의 길이가 다소 긴 것 같다. 그것이 숫자적으로 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e/

표1 에서도 그렇지만 표2 에서도 /e/의 발음은 /æ/와 심하게 혼동된다. 표2 의 세 낱말 2번, 3번, 7번의 /bed/, /bet/ /hed/의 결과를 관찰해 보면 무성자음 앞에서 역시 심하게 혼동된다. 특히 /bet/가 심하여 /i:/부터 /æ/까지 분포되고 있다.

예측한대로 /e/와 /æ/는 혼동이 심하고 무성자음 앞에서 더욱 심한 것 같다.

(4) /æ/

표2 의 8번 /bæd/, 10번 /bæt/, 11번 /kæt/를 보면 /e/의 경우와 같이 /e/와 혼동을 보여 주며 무성자음 앞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 /kæt/의 경우 오히려 /e/로 듣는 학생이 더 많다. 같은 무성자음 /t/앞에서 인데 /bæt/보다 /kæt/의 경우가 더 심한것은 양쪽이 모두 무성자음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한가닥 희망은 그래도 대체로 /e/는 /e/쪽으로, /æ/는 /æ/쪽으로 약간이라도 더 듣는다는 것이며, 그래서 /e/와 /æ/의 문제는 훈련에 의하면 전혀 속수무책은 아닐 것 같다.

3-2 발음능력 조사 결과

발음능력조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판정에 있다고 하겠다.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필자의 귀로 판정하는 것은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제한된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 상대적인 판정이 가능할것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그래서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영어교육과에서 비교적 귀가 밝다고 생각되는 두명의 학생을 선정하여 Gimson 교수의 전설모음을 훈련시킨후, 각각 개별적으로 녹음자료를 판정하게 했고, 필자의 것과 비교하니 상당한 공통점이 발견되어 다소 용기를 갖게 되었다.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세 사람의 평균치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정밀성이 없다하더라도 음의 상대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얼마간의 가치가 있으리라 믿는다.

녹음된 자료들을 일차적으로 /i:/, /ɪ/, /e/, /æ/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던 바 어느쪽에도 포함시킬 수 없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i:/와 /ɪ/의 중간 단계인 /i/(중간 단계라기 보다 /i:/에서 음의 길이만 짧은 것)와 /e/와/æ/의 중간 단계인 I.P.A 의 3번 모음 /ɛ/(한국어의 /에/정도)를 설정하여 6단계로 나누고 이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는 기타로 처리하였다.

표3 영어 전설모음 발음 결과 분석표

( )안은 %

문항번호	내용	i:	i	I	e	ɛ	æ	기타	합계
1	bɪt	22 (32.4)	45 (66.2)	1 (1.5)					68 (100)
2	bæt				22 (32.4)	41 (60.3)	4 (5.9)	1 (1.5)	

3	bi:t	39 (57.4)	28 (41.2)					1 (1.5)	
4	bet	1 (1.5)		1 (1.5)	39 (57.4)	27 (39.7)			
5	bed				29 (42.6)	31 (45.6)	7 (10.3)	1 (1.5)	
6	bi:d	47 (69.1)	20 (29.4)		1 (1.5)				
7	bæd				22 (32.4)	31 (45.6)	14 (20.6)	1 (1.5)	
8	bɪd	33 (48.5)	34 (50.0)	1 (1.5)					
9	dʒi:n	27 (39.7)	28 (41.2)	8 (11.8)				5 (7.4)	
	dʒɪn	43 (63.2)	21 (30.9)	2 (2.9)				2 (2.9)	
10	ted			1 (1.5)	64 (94.1)	2 (2.9)		1 (1.5)	
	hæz				12 (17.6)	52 (76.4)	4 (5.9)		
	tʃek				42 (61.8)	26 (38.2)			
	kæp			3 (4.4)	22 (32.4)	34 (50.0)	8 (11.8)	1 (1.5)	
	hænd				6 (8.8)	45 (66.2)	17 (25.0)		

(1) / i: /

/ i: /의 발음은 다른 모음에 비해서 큰 오차가 없는 것 같다. 대부분의 경우 / i: /와 /i/의 범위에 든다 (위의 3번, 6번, 9번). 그러나 음성학적으로 면밀히 관찰하면 3번의 경우(/bi:t/)는 오히려 /i/ 쪽이 바람직 한것 같다. 청취때와 마찬가지로 유성자음과 무성자음 앞에서의 음의 길이를 구분 못하는 것 같다. 이것은 문장 중에서 두드러져서 9번 /dʒi:n/ 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짧은 /i/를 내어서 문장 앞 낱말은 발음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2) / ɪ /

/ ɪ /의 발음은 필자의 생각으로는 거의 비관적이라 할 수 있어 1-2%의 학생만이 제대로 발음하는 것 같다. 위의 1번(/bɪt/)과 8번 (/bɪd/)에서 보는 바와 같이 / i: /와 / ɪ /로 혼동하여 발음하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충분히 긴 / i: /를 발음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 ɪ /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입의 근육을 너무 긴장시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연히 음이 길어지고 입이 적게 열리는 것 같다. 특히 문장중에서 / ɪ /의 경우(9번의 /dʒɪn /)에는 그 정도가 심하여 63.2 %나 되는 학생이 /dʒi:n / 으로 발음하고 있다. 좋게 보아서 문장 끝의 낱말에 액센트를 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3) / e /

청취때와 마찬가지로 /e/와 /æ/는 혼동이 심하다. 그런데 발음때는 충분한 /æ/가 되지 못하고 기껏해야 /ɛ/정도로 그치는 것 같

다 (즉, 한국어의 /에/정도). 위의 4번 5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번에는 무성자음 앞에서 보다 유성자음 앞에서 불안정성이 좀더 심하다. 문장중에서도 예외는 아니다(10번의 경우). 다만 / ted /는 거의 모든 학생이 /e/로 발음하는것 같다. 이는 앞의 /dʒi:n/ 의 경우와 같이 문장의 맨 앞자리에서의 불안정성 때문인 것 같다.

(4) / æ /

분명한 /æ / 발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들을 수가 없다. 물론 분명한 /æ /가 아니더라도 /e/와 상대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면 좋은데, 2번과 7번의 / bæt /와 / bæd/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e/와 /ɛ/가 혼동되고 있고, /e/의 경우와 같이 유성자음 앞에서 불안정성이 좀더 심하다. 문장중에서 발음은 더욱 불안한데(10번의 경우) 특히 /kæp/의 경우는 청취의 /kæt/의 경우와 같이 심히 불안정하다. 무성자음들 사이에서 모음을 가볍게 처리하기 때문인 것 같다.

/hæz/와 /hænd/의 경우는 비교적 안정성이 있는데(특히/hænd/인 경우는 /ɛ/와 /æ/를 합쳐서 91.2%) 이는 /h/음을 위한 심리적 영향때문인지 유성자음 앞에서 이기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hænd /인 경우는 /dʒɪn/ 의 경우처럼 문장 끝단어에 액센트를 주려는 심리적 결과가 아닌가도 생각할 수 있다.

4. 맺는 말

머릿말에서 예측한 바이지만 우리나라 대학생의 영어 청취 및 발음 능력은 수준이하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의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간추려 보겠다.

(1) 청취의 경우

1) / i: /와 /ɪ/의 구별은 음의 길이로 한다.

2) /ɪ/의 음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3) /ɪ/와 /e/를 혼동하는 학생도 많다.

4) /e/와 /æ/를 혼동하여 듣는다.

5) 환경에 따른 모음의 변이를 잘 알지 못한다. 특히 무성자음앞에서 모음의 청취에 크게 혼동하고 있다.

(2) 발음의 경우

1) / i:/의 발음도 불안정하다 (특히 문장중에서).

2) /ɪ/의 발음을 위해서 너무 조음기관을 긴장시킨다

3) 정확한 /e/의 위치를 모른다

4) 충분한 /æ/를 발음하지 못한다 (기껏해야 한국어 /애/정도에 그친다).

5) 환경에 따른 모음의 변이를 잘 알지 못한다.

좀더 상세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는 그런 연구를 위한 하나의 시작으로 생각하며 끝을 맺는다.

참 고 문 헌

이 현복. 현대 서울말의 모음 음가, 어학연구 7권 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71.

이 현복. 한국어의 모음 음가, 말소리 제1호, 대한 음성학회, 1980

이 현복편역 (John Trim 원저). 표준 영어 발음, 과학사, 1980

Gimson, A.C. *A Practical Course of English Pronunciation*, Edward Arnold, 1975.

Gimson, A.C. *An Introduction to English Pronunciation*, Third Edition, Edward Arnold, 1980.

<<충북대 영어교육과 교수>>